

청년 창업의 꿈에 날개를 달다! '창업부터 가업 승계까지' 보성군, 준비·시작·정착·성장 4단계 맞춤 시스템

보성군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부터 성장 단계까지 4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청년 창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준비(교육), ▲시작(창업), ▲정착(가업 승계), ▲성장(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을 체계화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 [준비] 막연한 상상을 구체적 혁신으로... '예비 창업 꿈나무 캠프'

보성군은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전남권환경성질향상예방관리센터에서 '예비 창업 꿈나무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경영 전략, ▲지식재산권, ▲요식·서비스업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1대1 집중 수업을 받았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과 아이템 고도화 과정을

통해 2026년 창업 진입을 위한 실질적 준비 단계를 마쳤다.

◆ [시작] 보성의 특색 입힌 청년 가계 탄생... '청년 창업 프로젝트'

군은 '2025 보성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총 6개 청년 창업팀을 선발하고, 팀당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총 7,5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차등 지원했다.

선발된 팀들은 자금 지원과 함께 ▲마케팅, ▲재무 관리,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실습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청년 가계 창업으로 이어졌다.

주요 창업 사례로는 녹차·꼬막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 청년 감각을 접목한 떡 공방, 관내 축제와 연계한 영상 콘텐츠 제작업체 등이 있다.

◆ [정착] 대를 잇는 청년, 지역의 미래가 되다... '가업승계 지원사업'

올해 신규 창업과 함께 청년 가업 승계 지원도 병행해 지역 정착의 또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보성군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청년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전역 군비 7,000만 원을 투입, 가업 승계 희망 업체 3개소를 선정·지원했다.

지원은 낡은 시설 환경 개선과 경영 역량 강화에 집중됐으며, 부모 세대의 기술과 청년 세대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가업 경쟁력 제고와 세대 간 지속성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 [성장] 창업, 그 이후까지 책임진다... '든든한 후속 지원'

보성군의 청년 창업 정책은 개업 이후에도 이어진다. 군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후속 성장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6개 창업체에 최대 1,000만 원의 성장 지원금과 함께 전문 기관 연계 경영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금·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보성/김문기 기자



빛으로 물드는 함평 도시재생 거리축제 한마당 개최

전남 함평군이 주민 거점 공간 '나비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하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함평군은 16일 "나비어울림센터 광장에서 '2025 함평 겨울빛축제와 연계한 '빛으로 물드는 함평 도시재생 거리축제 한마당'을 내년 1월 1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함평나비어울림센터는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거점 공간이다. 센터에선 공유 부엌 프로그램, 공방·문예교실, 어린이 작업실 등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활동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센터 앞 광장을 물론 놀이장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해 일상 속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해당 공간 이용은 함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 061-320-1593)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함평/전광훈 기자

이번 행사는 겨울빛축제와 연계해 함평읍 도시재생 거리를 밝히고 지역의 장을 마련하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함평나비어울림센터 광장에는 경관 조명과 빛 조형물이 설치되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주민들이 직접 기획·참여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펼쳐진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나비어울림센터가 주민 주도의 문화와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이끌어가는 지역 문화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나비어울림센터에는 지난 12월 5일 청년센터도 함께 개소해 GTQ 자격증반,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블로그 운영 및 수익화 실무 교육 등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 자유공간 '햇살마루'와 진로설계 지원 사업, 진로동아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광양시는 2025년 광주·전남권역 화랑훈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2월 15일 전라남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전시 및 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격년 단위로 실시하는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훈련이다.

광양시는 지난 10월 23일 광양공설운동장 일원에서 8개 기관·단체, 140여 명이

광양시, 2025년 화랑훈련 전라남도 최우수기관 선정

민·관·군·경·소방 유기적 협조체계 통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참여한 가운데 핵 및 WMD 사후관리를 주제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통해 상황별 대응 절차와 대응 계획을 점검·검증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높였다.

이러한 실천 중심의 훈련 운영과 높은 참여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통합방위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 온 점이 높이 평가돼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주민 보호 역

량 강화를 위해 민·관·군·경·소방이 긴밀히 협력해 온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비상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평소 예방·대비부터 유사시 신속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방위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241대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284.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군은 노후 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신차 대비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기 폐차가 단순한 차

고흥군,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온실가스 284톤 감축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로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

량 교체를 넘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기후 행동임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자동차(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 등)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조기 폐차한 참여한 군민들에게 총 4억 8천500만 원의 보조금

이 지원됐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감축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고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내년에도 조기 폐차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흥군이 전남 군단위 지역 최초로 '보훈문화상'을 수상했다.

군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26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두드러진 보훈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훈문화상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장흥군

장흥군, 전남 군단위 최초 '제26회 보훈문화상' 수상

전남권에서 2009년 순천시 이후 16년 만에 수상 쾌거

을 포함해 총 5개 팀이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장흥군은 상해와 함께 시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 전남권에서는 2009년 순천시에 이어 16년 만에 두 번째 수상이자, 군단위 지역으로서 처음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남겼다. 장흥군은 전남권 최초의 국립장흥호국원을 유지하고,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 안중근 의사 추모역사관 및 메모리얼 파크 조성 등 보훈 인프라 확충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호국·보훈 관련 시설을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역사·교육·추모가 결합된 복합 보훈 공간으로 발전시키며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또한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제, 학생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호국·보훈 글짓기 공모전, 보훈문화제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보훈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세대 간 보훈 가치 공유와 확산에 앞장섰다. /장흥군 제공

화순군, 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을 지난 15일부터 1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만 7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다.

지원 자금은 ▲농지 구매 ▲시설하우스 신설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시설자금과 품질개선 ▲종묘·종자 구매 등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구분된다.

융자 조건은 연금리 1%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자금 유형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운영자금은 일반 농업인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학사농어업인·배양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시설자금은 일반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학사농어업인은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시설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개인일 경우 1억 원 이내, 영농어업법인, 학사농어업인일 경우 2억 원 이내이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목적 사업에 착수하면 된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